

#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조 문 경\*

## I. 머리말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되면서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비단 실업문제 뿐 아니라, 취업을 하였더라도 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단지 실업상태를 피하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에 진입을 한 청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4,3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천 명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3,9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 증가, 실업자는 4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천 명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6.0%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고용률은 41.7%p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최근 10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3년 9월 다시 반등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가 최근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며 증가세가 회복되었다. 특히 15~24세 취업자 수는 글로벌금융위기인 2009년에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층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와 취업자 변화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청년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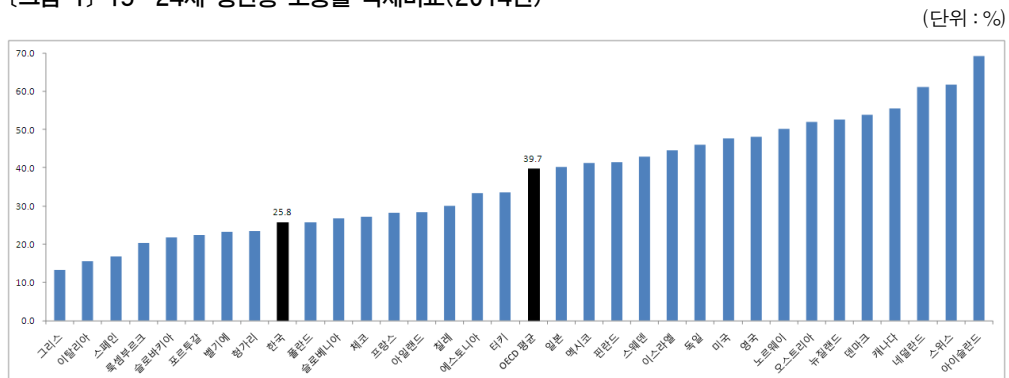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mkcho@kli.re.kr).

## II. 청년층 고용 현황

### 1. 청년층 고용률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률(15~24세) 추이를 살펴보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가 60%대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53.9%에서 2010년 45.0%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적은 폭으로 상승하여 2014년 청년층 고용률이 47.6%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4년 31.2%에서 소폭 하락하여 2009년 22.9%를 기록하였다가 점차 상승하여 2014년 청년층 고용률이 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층 고용률(39.7%)보다 낮은 수치로, 청년층 고용률 하위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40%대를 전후로 소폭의 증감만 있고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2014년 각각 13.3%, 16.7%로 나타났다.

[그림 1] 15~24세 청년층 고용률 국제비교(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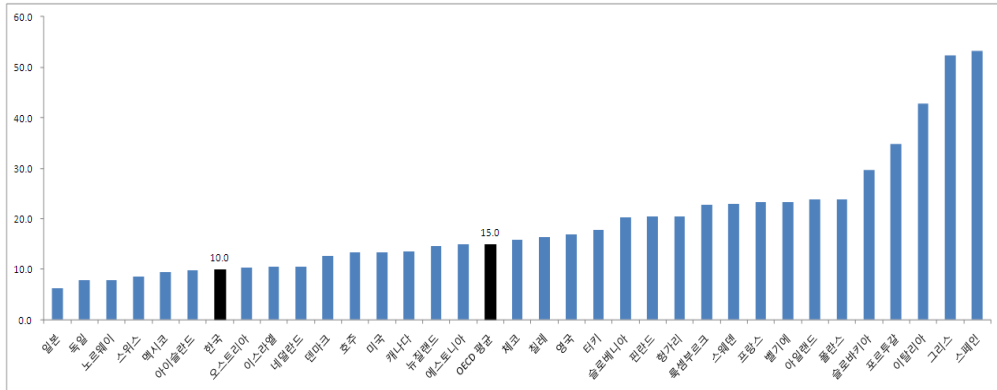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한편, OECD 주요국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인이 2013년 55.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 53.2%으로 하락, 그리스가 2013년 58.3%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14년 52.4%로 하락하였고, 이탈리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청년층 실업률 42.7%를 기록하였다. 일본,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는 한자리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한자리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하여 2014년 10.0%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층 실업률(15.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2) 15~24세 청년층 실업률 국제비교(2014년)

(단위 : %)



자료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 2. 고용 현황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19세는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269천 명, 취업자가 244천 명이었으며, 남성의 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데 비해 취업자 수는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0~24세는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2004			2010			2014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5~29세	전 체	10,141	4,990	4,578	9,705	4,254	3,914	9,503	4,255	3,870
	졸업·중퇴	5,552	4,133	3,812	4,686	3,424	3,166	4,452	3,347	3,059
	재학·휴학	4,589	857	766	5,019	830	748	5,051	908	811
15~19세	전 체	3,070	300	258	3,337	232	204	3,187	269	244
	졸업·중퇴	326	125	105	299	63	54	311	98	90
	재학·휴학	2,744	176	153	3,038	169	150	2,876	171	155
20~24세	전 체	3,278	1,911	1,722	2,644	1,293	1,171	3,035	1,513	1,359
	졸업·중퇴	1,818	1,416	1,278	1,146	836	757	1,299	972	872
	재학·휴학	1,460	496	444	1,498	457	414	1,737	542	487
25~29세	전 체	3,793	2,778	2,598	3,725	2,729	2,539	3,280	2,472	2,266
	졸업·중퇴	3,408	2,593	2,429	3,240	2,525	2,355	2,842	2,277	2,097
	재학·휴학	384	186	169	484	204	184	438	195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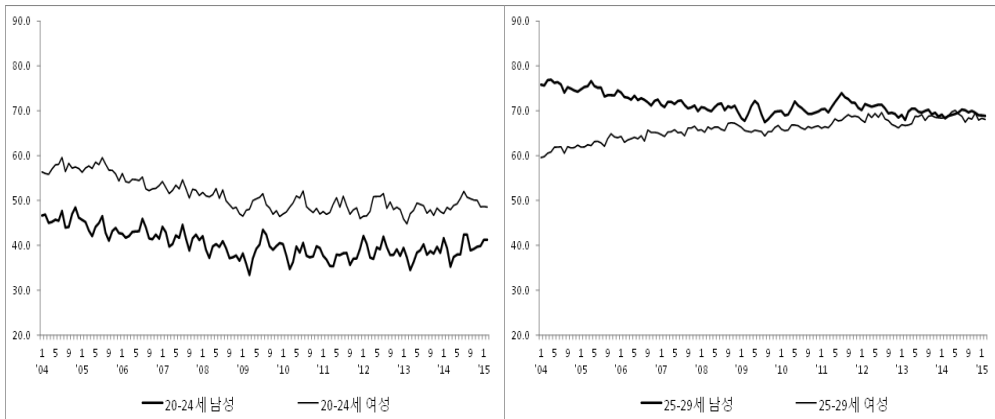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1,513천 명, 취업자가 1,359천 명이었으며 인구가 2010년 2,644천 명에서 2014년 3,035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5~29세는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2,472천 명, 취업자가 2,266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청년층의 인구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졸업·중퇴에서 감소하고 재학·휴학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지난 1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58~60%대에 머물렀고, 남성의 고용률은 70~72%, 여성의 고용률은 48~49%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5~19세는 2004년 이후 고용률이 하락하여 글로벌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증가폭은 미미하나 2014년 7.7%까지 상승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고용률이 하락하였다가 2010년 이후 반등하였으며,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0~24세 고용률은 2004년 52.5%에서 2011년 43.5%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적은 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2014년 44.8%가 되었다. 남녀 모두 지속적인 하락세였다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4년 고용률은 남성이 39.3%, 여성이 49.5%를 기록하였다. 매년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인다. 25~29세 고용률은 2004년 이래로 68~69%대에 머물러 있으며, 과거에는 이 연령대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4년 남녀 고용률의 차이가 14%p 이상 났었으나, 남성 고용률 하락과 여성 고용률 상승으로 그 격차가 0.6%p까지 좁혀졌다(그림 3).

[그림 3] 20~24세, 25~29세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취업자 증가율 요인분해

추세적 감소세에 있던 청년 취업자와 고용률이 최근 연령구간별로 다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을 연령구간으로

〈표 2〉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 요인별 변화

(단위 : %)

		전 체				졸업 · 중퇴				재학 · 휴학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 효과	참가율	취업률
15~19세	2005	-5.86	-0.81	-6.86	1.90	-15.59	-5.34	-11.49	0.75	0.82	-0.27	-1.24	2.36
	2006	-13.90	1.84	-17.39	2.34	-34.39	-21.24	-16.45	-0.31	-2.13	4.45	-8.86	2.81
	2007	0.63	3.24	-3.71	1.23	4.88	4.36	-4.21	4.92	-1.01	3.14	-3.85	-0.18
	2008	-9.76	1.11	-9.88	-0.97	-11.97	-4.02	-5.77	-2.67	-8.86	1.55	-9.99	-0.29
	2009	-6.49	1.44	-5.65	-2.30	-10.80	-0.55	-10.35	0.05	-4.80	1.60	-3.12	-3.28
	2010	15.07	1.60	12.73	0.47	13.52	23.56	-7.86	-0.29	15.64	-0.15	14.96	0.74
	2011	10.95	0.34	9.23	1.23	12.96	5.51	5.71	1.28	10.22	-0.17	9.06	1.23
	2012	1.61	-1.49	0.95	2.18	4.21	-1.38	6.32	-0.62	0.64	-1.50	-1.15	3.36
	2013	-2.80	-1.08	-0.11	-1.62	14.68	-5.42	22.13	-0.72	-9.52	-0.63	-7.50	-1.56
	2014	9.07	-2.30	10.29	1.22	22.36	5.66	9.16	6.08	2.60	-3.09	7.13	-1.18
20~24세	2005	-8.09	-6.41	-1.83	0.03	-9.56	-8.96	-0.19	-0.47	-3.86	-3.24	-2.05	1.44
	2006	-10.45	-6.08	-4.58	-0.07	-11.86	-11.17	-0.60	-0.17	-6.63	-0.11	-6.65	0.13
	2007	-7.36	-5.07	-3.68	1.32	-9.00	-10.06	-0.75	1.94	-3.17	0.13	-3.06	-0.23
	2008	-7.14	-1.97	-4.83	-0.47	-11.19	-6.68	-3.69	-1.19	2.58	2.44	-0.97	1.12
	2009	-3.16	-1.16	-1.68	-0.35	-7.21	-6.24	-0.75	-0.29	5.25	3.17	2.64	-0.60
	2010	-0.88	-0.24	-0.67	0.02	-0.96	-0.92	-0.52	0.48	-0.75	0.29	-0.22	-0.82
	2011	-0.90	0.89	-1.82	0.04	-5.42	-3.15	-2.51	0.17	7.37	3.99	3.42	-0.17
	2012	7.67	5.18	1.94	0.42	7.94	6.06	2.48	-0.69	7.25	4.56	0.29	2.28
	2013	2.34	5.39	-2.75	-0.15	4.18	4.93	-0.67	-0.05	-0.63	5.72	-5.78	-0.25
	2014	6.35	2.65	4.76	-1.10	8.39	5.14	3.37	-0.27	2.88	0.87	4.62	-2.51
25~29세	2005	0.99	0.37	0.50	0.12	0.29	-0.77	1.14	-0.07	11.12	10.48	-2.17	2.81
	2006	0.75	1.40	-0.53	-0.12	0.67	0.48	0.14	0.05	1.76	8.78	-4.31	-2.24
	2007	1.34	1.49	-0.36	0.21	1.23	0.96	0.18	0.08	2.78	5.39	-4.23	1.83
	2008	-0.15	-0.38	-0.12	0.35	37.58	-0.45	35.34	2.12	-1.08	0.11	0.35	-1.52
	2009	-2.86	-1.45	-0.23	-1.20	-29.54	-1.65	-26.22	-2.90	-1.28	-0.04	-1.75	0.51
	2010	-2.26	-3.15	0.76	0.16	-2.15	-3.53	1.10	0.33	-3.75	-0.57	-1.26	-1.97
	2011	-1.86	-4.07	1.76	0.54	-1.51	-2.83	0.87	0.49	-6.36	-12.36	5.78	1.00
	2012	-5.15	-4.48	-0.57	-0.14	-4.46	-4.60	0.19	-0.04	-14.52	-3.57	-9.63	-1.90
	2013	-3.08	-2.49	-0.03	-0.57	-3.40	-3.26	0.24	-0.38	1.74	3.21	1.54	-2.92
	2014	-1.08	-1.46	1.70	-1.30	-2.04	-2.20	1.50	-1.31	12.63	3.70	8.95	-0.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누어 인구효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취업한 효과(취업률)로 분해하여 어떤 요인이 주되게 작용하여 취업자 변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sup>1)</sup>

15~29세 취업자 변화의 요인분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인구효과와 취업률 변화 양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2013년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인구효과와 취업률 변화폭은 미미하여,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폭이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을 보면, 15~19세 취업자 증가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이 매우 커져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는데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2011년 취업자 증가율이 매우 큰 폭으로 높아졌는데 이 시기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의 큰 증가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효과는 대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세 청년층 취업자 변화의 요인분해를 살펴보면, 2009년~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효과가 (+)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의 좌측하단). 취업률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인구효과가 취업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2008년~2009년 취업자 증감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4세를 졸업·중퇴자와 재학·휴학생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해본 결과 졸업·중퇴자의 경우 인구효과가 취업자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재학·휴학생의 경우는 인구효과와 더불어 경제활동참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20대 초반에서의 인구유입의 상당부분이 노동시장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29세 취업자는 대체로 인구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0~2012년에는 인구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그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인구효과만이 취업자 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1) 요인분해 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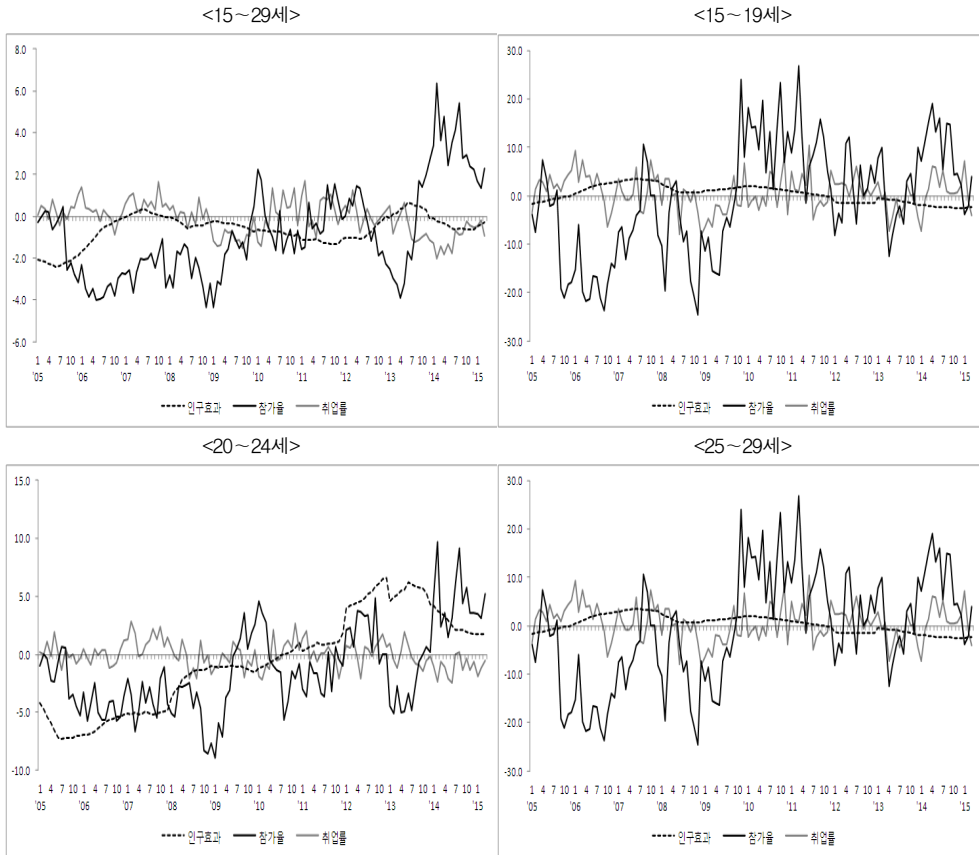
$$E = P \times \frac{L}{P} \times \frac{E}{L} \Rightarrow \dot{E} = \dot{P} + \left(\frac{\dot{L}}{P}\right) + \left(\frac{\dot{E}}{L}\right)$$

( $P$ : 생산가능인구,  $L$ : 경제활동인구,  $E$ : 취업자,  $\dot{\quad}$ : 증가율)

위 식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 $\dot{E}$ )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율( $\dot{P}$ ),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 $\frac{\dot{L}}{P}$ ), 취업률의 변화율( $\frac{\dot{E}}{L}$ )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청년층 취업자 변화의 요인분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 산업별 취업자 분포

15~29세 청년층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산업으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2004년 921천 명(20.1%)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업종이었으나 2014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16.2%에 해당하는 629천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분포는 2014년 남성이 68.2%, 여성이 31.8%로 남성이 1/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2004년 이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201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반등하여 2014년 633천 명(16.4%)으로 증가하였고, 청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까지 추세적 감소 이후 2014

〈표 3〉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분포(15~29세)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취업자 비중				
		2014	2004	2007	2010	2014
전 체	3,87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34	0.8	0.6	0.8	0.8	0.9
광업	2	0.1	0.0	0.0	0.0	0.0
제조업	629	20.1	18.1	17.0	17.0	16.2
남성	429	65.8	65.6	67.9	67.9	68.2
여성	200	34.2	34.4	32.1	32.1	31.8
전기·가스·증기·수도	8	0.2	0.2	0.2	0.2	0.2
하수, 원료재생·복원	9	0.2	0.2	0.2	0.2	0.2
건설업	121	4.9	4.2	4.2	3.6	3.1
도매 및 소매업	633	19.1	17.4	17.4	15.8	16.4
운수업	70	2.3	2.1	2.1	2.6	1.8
숙박 및 음식점업	501	8.4	8.5	8.5	9.7	12.9
출판·영상·방송통신등	187	4.8	5.1	5.1	4.5	4.8
금융 및 보험업	129	4.2	4.0	4.0	4.2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	1.0	1.1	1.1	0.8	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18	4.5	5.8	5.8	5.6	5.6
남성	83	50.1	41.0	41.0	41.5	38.2
여성	135	49.9	59.0	59.0	58.6	61.8
사업서비스	168	2.7	4.2	4.2	4.3	4.3
공공행정 등	84	2.0	2.6	2.6	2.3	2.2
교육서비스업	378	11.8	12.5	12.5	12.3	9.8
남성	111	18.5	19.7	19.7	21.3	29.3
여성	268	81.5	80.3	80.3	78.7	7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414	6.0	6.3	6.3	8.7	10.7
남성	54	15.6	14.1	14.1	12.1	13.1
여성	360	84.4	85.9	85.9	87.9	86.9
예술·스포츠·여가	105	2.6	3.0	3.0	3.2	2.7
협회·단체·수리·기타	156	4.4	4.2	4.2	4.2	4.0
가구내 및 자가	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	0.1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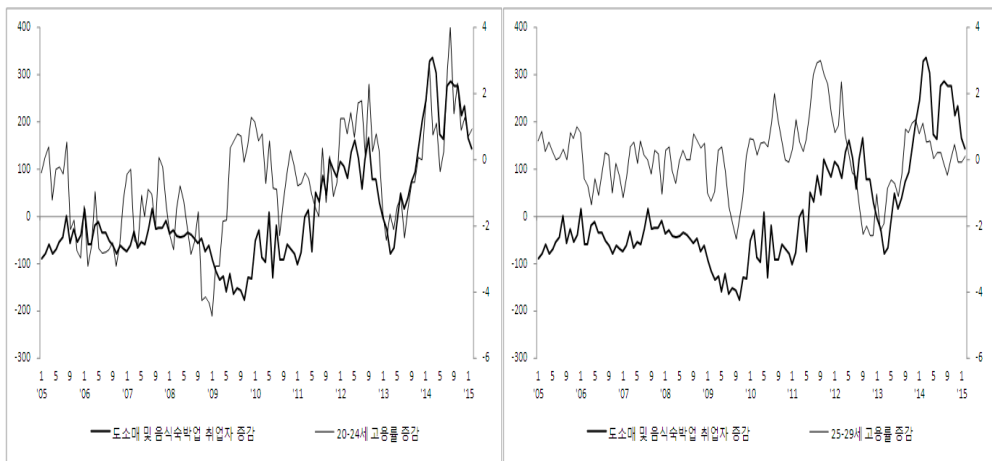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년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07년 358천 명이었으나,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4년 501천 명(12.9%)을 기록하였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취업자는 200천 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 218천 명(5.6%)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남녀 성비가 1:1이었다가 2014년 남성이 38.2%, 여성이 61.8%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2004년 538천 명에서 2014년 378천 명(9.8%)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층의 10% 가량이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중이 2004년 2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2014년 29.3%까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취업자는 2004년 272천 명에서 2014년 414천 명까지 증가하였고, 이는 청년 취업자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가·관련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남성이 13.1%, 여성이 86.9%로 나타나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업종이었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2014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5~19세의 경우 해당 연령대 취업자 수의 60%에 달하는 143천 명, 20~24세는 486천 명, 25~29세는 505천 명으로 청년층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취업한 비중이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0~24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5~29세 음식숙박업 취업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졸업 후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연령층인 25~29세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의 증감이 반복되었는데, 음식 및 숙박업의 일자리 특성상 이 연령대의 취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로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전체) 및 청년층(20~24세, 25~29세)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는 일부 업종 취업자 증감과의 비교를 위해 청년층 고용률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4세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의 증감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24세 고용률 증감과 추세가 같게 나타난다. 이 연령대의 고용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일자리의 질적 변화

#### 1. 종사상 지위

앞서 청년층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표 4〉 2014년 청년층 취업자 대비 산업별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중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상용직	임시·일용직
2014	제조업	50.5	48.6	70.1	28.7	77.4	20.4
	도매 및 소매업	4.9	89.3	22.6	71.9	38.0	45.1
	숙박 및 음식점업	0.3	94.8	8.6	80.8	12.6	5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7.0	93.0	55.9	41.6	73.1	23.2
	교육서비스업	2.4	46.1	23.6	53.7	41.1	4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14.4	85.6	58.4	41.6	76.6	23.2
	전 체	13.0	78.8	38.7	54.1	54.5	35.4
2011	제조업	65.5	32.3	73.3	25.3	84.4	13.8
	도매 및 소매업	4.3	94.5	34.5	60.8	51.0	36.8
	숙박 및 음식점업	2.1	96.2	13.3	81.1	30.3	52.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1.3	48.7	66.6	30.0	84.2	11.3
	교육서비스업	7.3	65.9	28.9	52.1	48.6	3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25.4	67.9	85.8	14.2	89.9	9.8
	전 체	13.8	82.6	45.4	49.6	67.5	2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는 각 산업별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15~19세의 2014년 상용직 비중은 13.8%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65.5%), 숙박 및 음식점업(2.1%), 전문·과학·기술서비스(51.3%), 교육서비스업(7.3%), 보건업 및 사회복지(25.4%)에서 2004년에 비해 비중이 커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임시·일용직 비중은 82.6%로, 도매 및 소매업(94.5%), 숙박 및 음식점업(96.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24세와 25~29세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6개 업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에서 2014년 상용직 비중이 2004년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아직도 20~24세의 상용직 비중[도매 및 소매업(34.5%), 숙박 및 음식점업(13.3%), 교육서비스업(28.9%)]과 25~29세의 상용직 비중[도매 및 소매업(51.0%), 숙박 및 음식점업(30.3%), 교육서비스업(48.6%)]이 낮은 수준이다. 25~29세 취업자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는 2014년 상용직 비율이 8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시·일용직 비중의 경우 20~24세(49.6%)와 25~29세(24.4%)에서 2004년에 비해 낮아진 모습을 보였으나, 20~24세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60.8%)과 숙박 및 음식점업(81.1%)에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25~29세 임시·일용직 비중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52.7%를 기록하며 이 업종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저임금근로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5>는 저임금근로자 수 및 비중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 전후로 적은 폭의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

청년층(15~29세) 저임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19세는 2004년 기준 173천 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74.3%가, 2014년에는 212천 명으로 81.1%가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저임금근로자는 2004년 40.4%였다가 2013년 45.8%까지 증가한

<표 5> 연령대별 저임금근로자 수 및 비중

(단위: 천 명, %)

	저임금근로자 수			저임금근로자 비중				
	2004	2009	2014	2004	2009	2012	2013	2014
전 체	3,891	4,311	4,507	26.7	26.2	24.8	24.9	24.0
15~19세	173	161	212	74.3	82.7	82.6	78.1	81.1
20~24세	626	499	603	40.4	44.4	44.9	45.8	44.6
25~29세	383	364	306	16.7	15.5	14.8	15.8	14.9
30~54세	1,932	2,124	1,862	21.3	19.9	17.2	16.8	15.7
55세 이상	775	1,162	1,524	53.6	53.9	50.1	50.3	4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후 2014년 44.6%로 소폭 감소하였다. 25~29세 저임금근로자는 15%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표 6>을 통해 청년층(15~29세)의 산업별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15~29세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4년 29.0%에서 2014년 30.6%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등의 산업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을 졸업·중퇴자와 재학·휴학생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재학·휴학생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2014년 도매 및 소매업에서 76.4%,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91.3%, 예술·스포츠·여가에서 84.4%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재학·휴학생의

<표 6>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대비 산업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전 체		졸업·중퇴		재학·휴학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전 체	29.0	30.6	23.6	19.6	56.6	56.8
농림어업	14.7	13.3	10.2	15.4	34.7	0.0
광업	17.3	0.0	17.3	0.0	-	-
제조업	20.1	13.8	17.8	11.3	40.6	29.7
전기·가스·증기·수도	6.3	0.0	6.8	0.0	0.0	0.0
하수, 원료재생·복원	24.4	16.0	24.4	16.0	-	-
건설업	24.1	14.4	19.8	10.4	48.8	41.1
도매 및 소매업	42.4	42.2	35.9	28.5	69.6	76.4
운수업	19.0	20.8	13.9	11.2	50.4	63.6
숙박 및 음식점업	61.8	74.3	51.5	53.8	78.8	91.3
출판·영상·방송통신등	11.1	9.9	5.5	5.3	46.7	43.3
금융 및 보험업	4.9	2.8	3.4	3.1	23.0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5	24.2	31.9	17.6	63.9	55.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8.9	11.9	17.1	9.8	33.1	50.3
사업서비스	25.8	17.5	24.0	13.8	36.2	38.3
공공행정 등	25.3	18.9	17.2	13.4	68.2	50.6
교육서비스업	17.2	25.0	14.3	19.2	29.9	3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25.2	17.6	24.0	14.7	37.5	60.4
예술·스포츠·여가	64.4	69.1	49.1	42.8	84.7	84.4
협회·단체·수리·기타	48.0	52.6	46.0	50.0	63.9	63.3

주: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은 표본 수가 적어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70%이상이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에서 재학·휴학생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0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중퇴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에서 같은 기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청년층 고학력화의 진행으로 재학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임금근로 일자리가 졸업·중퇴자에서 재학·휴학생에게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5~19세는 제조업에서 2004년 62.5%에 비해 2014년 41.6%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에서 2004년 79.0%에 비해 2014년 57.3%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89.6%), 숙박 및 음식점업(91.9%), 교육서비스업(76.5%), 보건업 및 사회복지(83.4%)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고 그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는 2014년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2004년과 비교한 결과 제조업(2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24.1%), 보건업 및 사회복지(23.6%)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졌고, 도매 및 소매업(58.4%), 교육서비스업(28.9%)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004년 60.2%에 비해 2014년 81.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24세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임을 감안하면 해당 연령대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29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제조업(8.2%), 도매 및 소매업(2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4.5%), 보건업 및 사회복지(12.5%)에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47.5%)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교육서비스업(19.5%)에서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저임금일자리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에서 저임금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이 몰리는 직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는 80% 이상이 저임금근로자였고, 20~24세도 80%를 넘어서는 수치로 2004년보다 10%p 이상 증가하였다. 25~29세도 2004년 63.3%에서 증가하여 2014년 74.5%를 기록하였다. 종합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중이 70~80% 대로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분포는 지난 10여 년 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저임금일자리 구성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IV. 맺음말

최근 청년구직자의 고학력화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시장 내 일자리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공급은 많은데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졸업 후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사회진입을 유보시킬 수 있다. 최근 20대 중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셈이 된다.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특징 중 하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증가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앞에서 최근 청년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2014년 15~19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95% 내외였고, 20~24세는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도매 및 소매업은 60.8%, 숙박 및 음식점업은 81.1%였다. 이렇듯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은 일자리는 청년층 취업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대인 25~29세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의 상용직 비율이 도매 및 소매업은 51.0%,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3%에 불과하였다. 이는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연령대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청년층이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노동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청년층을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KLI**

### <참고문헌>

정성미(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